

‘선비천국’ 조선의 내밀한 속살을 까발린다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다’

계승범 지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다룬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SBS)를 보면 선비들의 비밀 조직인 ‘밀본’이 등장한다. ‘밀본’의 수장격인 정기준이 결사적으로 이도의 한글 창제를 막는 과정이 이야기의 큰 줄기다. “백성이 글을 알고 읽고 쓰는 즐거움을 알면 지혜를 가지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러진다. 그 욕망을 정치를 향한 데고, 그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하게 될 것”이라는 정기준의 논리다. 이 말에는 조선 사회에서 선비들이 차지했던 위상과 역할이 여실히 담겨있다.

역사학자 계승범의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다’에서는 ‘선비 천국’ 조선의 내밀한 속살을 까발린다. 저자의 가장 큰 주장은 “선비들이 충성을 바친 대상은 조선의 왕이 아니라 명나라였다”는 것이다. 또 청빈과 안빈낙도로 대변되는 정직한 선비의 삶도 함께 풀만 벗겨보면 땅과 노비를 거느린 탐욕의 역사라는 반전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조선의 대표 선비인 이황을 살펴보자. 그가 거느린 노비만 367명에 달했으며 예안, 봉화, 영천, 의령, 풍산 등지에 걸쳐 논과 밭을 각각 1166마지기, 1787마지기를 소유했다. 이들이 500여년 동안 독점적 지배권을 누릴



청렴할 것으로 알았던 조선의 선비는 권력과 탐욕으로 물든 이중성을 안고 있다. 사진은 한글을 만들려는 세종대왕과 선비 조직들의 다툼을 그린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의 한 장면.

수 있었던 까닭도 노비와 전도를 소유한 재력이 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상징인 김광필, 정여창, 김일손, 이이 등도 역시 서울과 지방에 막대한 노비와 땅을 가진 부호였다.

대부분 선비는 청빈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유유자적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 왕과의 권력 다툼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선비들의 나라 사람이 잘 드러난 임진왜란 의병에 대해 “명나라가 주도하는 중화 질서 혹은 중화 문명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도발적인 주장을 한다.

이들 의병이 조선뿐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의병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화의를 반대하고 결사 항전을 주장하다가 인조가 항복한 뒤 중국 선양으로 끌려가 참형 당한 홍익한·윤집·오달재 등 삼학사도 이 같은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지조와 의리 역시, 그 본질은 중화질서였고, 유교적 가치였다는 것이다.

후금을 치기 위한 명나라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려는 광해군에게 비변사의 당상관들이 “차라리 전하에게 죄를 범할지언정 천자에게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19세기 후반 위정척사 운동도 선비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역시 중화에 바탕을 둔 보수적 유교 때문이란 것이다.

책은 원래 선비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는다. 저자는 “물질적 욕망을 누르고, 권력에의 탐욕을 배제하고, 덕행과 의리를 존중하는 유교 이념 구현의 인격적 주체로서의 선비를 진짜 선비로 규정한다”고 소개한다.

〈역사의 아침·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산강이 품은 아름다운 강변 풍경

‘강같은 세상은 온다’

박성천 지음



전라도의 젓줄 영산강에 뱃길이 뚫리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100여개의 왕건호와 황포돛배 운항을 통해 영산강 뱃길과 죽산보를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부질없는 삽질과 무모한 개발이 아니기를 기원하는 목소리도 높다.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의 소설가 박성천의 ‘강같은 세상은 온다’는 우리가 미처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채 내버려뒀던 영산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영산강의 시원 용소, 가마골, 담양호, 관방제림, 죽녹원, 담양천, 거진나루터, 서창 들녘, 담양습지, 영산포, 주릉포와 상사바위, 갯바위공원, 유달산 강변 풍경을 소개한다.

또 식영정, 화산연꽃방죽, 영산 테마파크, 영산포 흥어의 거리, 상무지구, 동림지구, 첨단지구, 목사골 나주 등 영산강에 기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옛 자취와 현재의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

눈부시게 강물 위에 부서지는 햇빛,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의 여유로움, 노 저어 가는 작은 배 등 그림 같은 강변 풍경이 흑백사진으로 곁들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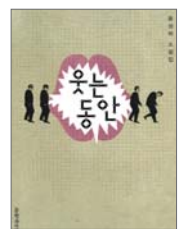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라 소설가 특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 강과 사람의 관계를 고민하게 해준다. 그가 말하는 ‘강 같은 세상’은 사람과 마을, 강과 바다가 아름다움으로 어우러진 공존의 공간을 말한다.

〈문학들·1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타인에 대한 연민... 사소하지만 기적같은 이야기

‘웃는 동안’

윤성희 지음



늘상 함께했던 네명의 친구 가운데 한명이 죽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된 사내들이다. 장례식에 다녀온 친구들은 죽은 이의 집으로 가 낡은 소파를 들고 나오고, 귀신이 돼 그를 곁에 함께하는 죽은 이는 꼬치꼬치 참견하며 그들과 길을 간다. 쓸쓸한 풍경이지만, 글을 읽다 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온다.

윤성희의 신작 소설집 ‘웃는 동안’에 실린 표제작의 스토리다. 윤씨의 소설에는 언제나 타인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 하지만 슬픔이나 힘든 상황에 정색하지 않고 드문드문 등장하는 유머는 오히려 짝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

책에는 그밖에 일본의 최고 고령자가 실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다는 일본발(發) 기사에서 모티브를 얻은 ‘눈사람’, 영화 오래 보기 대화에 나간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공기 없는 밤’, 오래된 선공기를 청소하다, 가짜 자서전을 쓰는 여자가 떠올라 시작된 ‘부메랑’, 죠스바를 먹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이 만들어진 ‘어쩌다’ 등 2007년부터 올해까지 쓴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1999년 ‘레고의 집’으로 등단한 윤씨는 작품집 ‘거기, 당신?’과 ‘감기’, 장편소설 ‘구경꾼들’을 썼으며 황순원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수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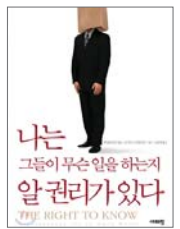
〈문학과 지성사·1만1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납세자의 알 권리를 위한 투쟁

소박하지만 깊은 성찰 삶의 지혜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플로리니 외 지음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플로리니, 토머스 블랜턴 등이 지은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정부나 국제기구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끌어올린 사례를 소개한 책이다.

미국의 비공개 외교 전문을 공개하는 위키리크스가 등장하는 등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투명성 운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2006년 현재 70여

개국이 정보 공개를 위한 정책이나 법률을 본격적으로 채택했거나 준비 중이다.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등 국가별 사례를 중심으로 끈질긴 시민운동 끝에 투명성을 보장받게 된 과정을 엮어냈다. 저자들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대의 창·2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량품’

정응철 지음



짧지만 명료한 삶의 감동을 전해주는 ‘좋은생각’ 발행인 정응철씨가 잔잔한 생활 에세이를 담은 ‘불량품’을 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박하지만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지난 7년간 ‘좋은생각’에 연재했던 글과 최근에 새로 쓴 글을 묶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며 자연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느낀 감

회를 담았다. 현관의 형틀어진 신발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일상의 송고함을 되새기며, 안과에서 처방받은 인공 눈물을 통해 기뻐서 울 수 있는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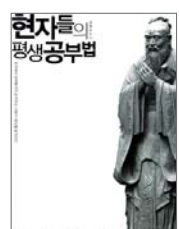
저자는 “갈수록 각박해지고 고단해지는 세상에 절망에 빠져 힘들고 지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 웃음 그리고 감사를 떠올리라”고 당부한다.

〈좋은생각·1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자·맹자 등 현자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현자들의 평생 공부법’

김영수 지음



전교 1등 옆에 앉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우둔한 질문 같지만 현자들의 공부방법은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사다.

‘현자들의 평생 공부법’은 춘추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사상가, 교육자인 공자를 비롯해 맹자, 사마천, 제갈량 등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말한 공자(孔子)를 포함해 사마천, 무신, 마오쩌둥 등 중국 학자들이 제안한 독서 방법도 소개한다.

저자는 현자들의 공부 특징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지닌 점,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며 입으로 소리 내는

삼위일체를 고수한 점, 깊은 사색을 즐긴 점, 여행이나 현장 학습을 중시한 점” 등을 꼽았다.

또 이들은 “진정 책을 좋아하는 사람, 독서인은 책을 그냥 읽기만 하지 않는다. 책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책은 돈을 모아 사며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샀다. 또 아마저도 힘들면 만국을 찾아가서라도 그 책을 꼭 읽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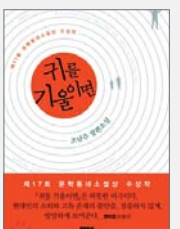
이 밖에도 모택동은 ‘세 번 반복해 읽고 네 번 익힌다’는 공부법을 강조했고, 그저 평범하게 읽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그 안에 담긴 유익한 영양분을 섭취했다고 한다.

〈역사의 아침·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는다=조선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꼽히는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을 쉽게 풀어쓴 책. 조선시대 학문과 사상, 문화, 과학을 들여다보며 현재 사회에 투영할 만한 지식을 담았다. 한글이 인도 글자를 모방했다는 설에 대해 검증을 시도하고 성균관에서 소를 잡아먹은 사연, 금성이 낮에 나타났던 일화 등 선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알마·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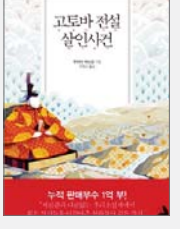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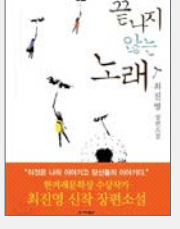
▲귀를 기울이면=제17회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가인 조남주의 장편. 바보라고 불리지만 듣는 데 비상한 재능이 있었던 소년 김일우, 천체를 겪고 있는 재래시장인 세오 시장 상인회 총무 정기섭, 한때는 이름 있는 PD였으나 방송사를 제 발로 걸어내려와 차린 주 제작사에서 고전하고 있는 네오프덕션 PD 박상운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문학동네·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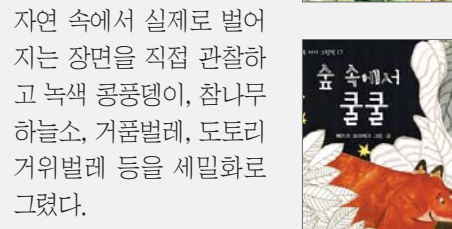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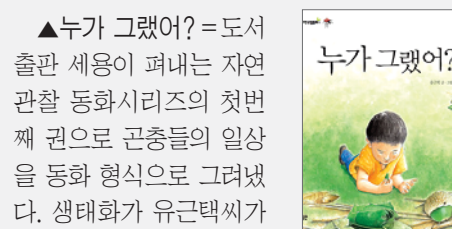
▲아파트와 바꾼 집=대학에서 주거 건축을 가르치고 있는 박철수·박인석 교수가 전해주는 집 이야기. 이들은 나란히 아파트를 팔고 죽전에 단독주택을 짓고 이사했다. 이들의 단독주택 이주기와 이주 후 1년 동안 지내면서 겪은 생활을 기록했다. 이들이 지은 집에 들어간 돈은 각각 9억~11억, 조금 버거워 보이는 액수지만 이들은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삶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동녘·1만6000원〉



▲고토바 전설 살인사건=누적 판매부수 1억부를 돌파한 우치다 야스오의 인기 추리소설.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기차역에서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고, 피해자는 ‘고토바 범람’의 유배 경로를 따라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이 여성의 죽음을 추적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펼쳐진다.

〈검은숲·1만2000원〉



▲누가 그랬어?=도서출판 세움의 펴내는 자연관찰 동화시리즈의 첫 번째 권으로 곤충들의 일상을 동화 형식으로 그려냈다. 생태화가 유근택씨가 자연 속에서 살려놓은 장면을 직접 관찰하고 녹색 공룡이, 참나무하늘소, 거품벌레, 도토리거위벌레 등을 세밀화화 그려냈다.

〈세움출판·1만원〉

▲술속에서 푼 푼=아기그림책의 스테디셀러로 사랑받은 ‘알록달록 아기 그림책’의 신간이다. ‘스르’, ‘새근새근’, ‘풀풀’ 등 잡자는 모습과 관련된 의성어와 의태어가 실려 있어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돕는다. ‘살금살금 앙금앙금’, ‘우리 아기 까꿍’, ‘누구게’ 등도 함께 나왔다.

〈각권 7500원〉

▲매골 매골 매골=색색의 구슬이 떠나는 여행을 따라가며 상상력을 배울 수 있는 작품이다. 색색의 구슬이 굴러가기 시작한다. 계단을 오르고, 울퉁불퉁한 길과 비탈길을 오르고 바람을 타고 구슬은 계속 굴러간다. 일본의 대표적인 추상화가인 모토나가 사다마사의 작

품이다.

〈아트북스·1만6000원〉

▲그림 상상력 학교=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한 한지희씨가 펴낸 책으로 반 고흐의 ‘해바라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마르셀 뒤샹의 ‘샘’, 프리다 칼로의 ‘시간은 날아간다’ 등 미술사에서 유명한 작품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그림에 호기심을 갖게 해주는 책이다. ‘마음이 웃는 상상력’, ‘생각이 자라는 상상력’, ‘이야기 꽃피는 상상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래=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과학·자연·생활·문화에 대한 원리와 생생한 정보, 깊이 있는 지식을 흥미롭게 풀어낸 ‘나는 알아요 시리즈’ 중 한권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흰긴수염고래)를 포함, 바닷속을 누비는 포유 동물인 고래의 생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함께 실린 오디오 CD에는 고래가 헤엄치는 소리와 울음소리 등이 담겨 있다.

〈시피리·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